

#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 Family Functioning,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Strategies and Couple's Psychological Adjustment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최 규 련

Dept.of Home Management, Suw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yu Reon Choi

### 〈목 차〉

I. 서 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family functioning,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strategies and couple's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s on couple'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32 couples with teen-aged children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couples' perception of their family functioning(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had linear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marital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2) For both spouses, marital conflicts, avoidance strategy, action-expression strategy, emotional strategy and outside-aid seeking strategy were negatively related to family functioning,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wer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Rational coping strategy was positive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nd were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3)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marital conflicts, avoidance strategy,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income. Couples' self-esteem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rational coping strategy, family functioning, family income and avoidance strategy. Couples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marital conflicts, emotional strategy, and avoidance & action expression strategy. In addition, wives' self-esteem were affected by family functioning. A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wives and husbands in the findings.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부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갈등요소를 가지게 되어 부부간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관계의 안정과 행복은 물론 개개인의 정신건강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기능적이고 건강한 가족체계에 대하여 가족 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측정하고 부부간의 갈등 대처방안과 그에 따른 심리적 적응을 연구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가족생활교육과 가족상담 분야에서도 적용될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자는 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94a)에서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처방안이 가족체계의 기능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러 임상보고 결과(최규련, 1994b; 유은희, 1994 참조)에서 부부간의 갈등정도와 갈등대처방안이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관련될 뿐 아니라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이러한 현상은 건강한 가족의 특징(유영주, 1994; 서병숙, 1994)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가족에서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 등이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실증한 연구는 아직 없고 이와 관련 부부 양방의 차이를 고찰한 연구도 없

다. 다만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부부관계와 관련시켜 고찰한 연구로 Olson 팀(1979, 1983)이 개발한 가족체계 모델을 중심으로 부부적응(김윤희, 1989), 생활만족도(박경숙, 1993; 김정옥, 1995), 부부간의 의사소통(유순덕, 1987; 안양희, 1987; 김수연·김득성, 1993), 가족스트레스와 대응책략(정민자, 1992) 등이 주로 부인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일반가족의 부부 양방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 각자의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적응(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가족문제의 예방과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유용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본 연구가 실시되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체계의 기능성에 따라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적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의 갈등 및 대처방안, 부부의 심리적 적응은 상호 어떻게 관련되는가?

〈연구문제 3〉 부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체계의 기능성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가족체계가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고 건전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개념은 주로 체계론을 적용하는 가족상담 실무와 연구 분야에서 처음에 개발되었고 실증적 연구도 이루어졌다. 기능적인 가족체계 개념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최상으로 기능하는 가족(optimally functioning family), 또는 충분히 기능하는 가족(fully functioning family)의 특성을 나열하는 서술적 방법과 여러 요인을 통합한 모델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전자의 서술적 접근에 해당하는 특징을 정리하면 부모의 높은 자아분화, 세대간의 분명한 경계, 현실적 지각과 기대, 부모의 연합, 친화적 태도, 공감적 이해, 개방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상호존중, 협의적인 의사결정, 긴장과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문제해결능력, 변화에 대한 적응과 융통성, 소속감과 독립성의 균형적 발달 등이 있다(Lewis, 1976; Framo, 1981; Forgarty, 1976).

가족의 기능성을 통합모델로 제시하는 후자의 예로 Beavers(1977)와 Olson등(1979, 1983)이 있다. Beavers는 가족의 구조, 신화, 가족협의, 자주성, 가족의 정서를 평가기준으로 한 체계모델(system model)을 제시하고, 가족의 내적·외적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을 유능성(competence)으로 명명하여 다섯가지 수준을 연속선 상에 배열하였다. 즉 연속선의 한끝에는 최적의 기능가족, 그 반대쪽에는 융통성과 적응력이 없는 심각한 장애가족을 두고 그 가운데 적절한, 중간범위, 경계선 가족등을 차례로 배열하고, 유능한 가족체계일수록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이 없고 가족원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Beavers는 가족의 유대감에 Stierlin(1972)이 제시한 원심적(centrifugal)양식과 중심적(centripetal)양식 개념을 적용하여 잘 기능하는

가족은 극단적으로 원심적이거나 중심적이지 않고 균형적인 양식을 보이지만 경계선상 가족이나 심각한 장애가족은 중심적 양식이나 또는 원심적 양식을 지닌다고 하였다.

Olson 등(1979, 1983)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발전시켰다. 응집성은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적응성은 융통성있게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두 가지 모두 직접적으로 조합을 이루어 가족의 역동성을 보여주지만 가족의 의사소통은 촉매작용만을 한다. 이 모델은 응집성을 유리, 분리, 연결, 속박의 네 수준으로, 적응성을 경직, 구조적, 융통적, 혼돈의 네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서 중간부분이 기능적인 가족이고 양 극단은 역기능적인 가족이라는 곡선적(curvilinear)가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중간에 위치하는 균형가족(balanced family)이 건강하고 기능적이며 양 차원이 양쪽 극단에 위치하는 극단가족(extreme family)은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이 두 모델은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두 차원으로 나누고 가족원의 유대감과 효과적인 가족기능과의 관계방향이 곡선적이라는데 일치하지만, 적응성과 효과적인 가족기능의 관계방향에서 체계모델은 선형적 관계로, 순환모델은 곡선적 관계로 가정하여 차이를 보인다. 두 모델중 Beavers의 모델은 가족원을 면접하고 상호작용을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는 방법으로 기능성을 평가하므로 질문지법만을 사용하는 Olson 등의 모델에 비해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Olson 등의 모델을 적용하여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Olson 등이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여 실증적 고찰을 하였다. Olson등이 제시한 곡선적 가설은 주로 임상가족을 포함한 연구에서 입증되었다(Anderson, 1986; Bell, 1982; Clake, 1984; Green, Kolevzon & Vosler, 1985; 임용우, 1984; 유순덕, 1987; 도수경, 1990; 정민자, 1992).

그러나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이 최적인 가족 기능과 선형적 관계라는 보고가 있고, 곡선적 관계를 전제로 한 접

근에 대해 반론들도 있다(Beavers & Voeller, 1983 ; Miller, Epstein, Bishop & Keitner, 1985 ; Smith, 1985 ; Cohen & Will, 1985). 또한 순환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의 문제로 표집방법과 가족분류방법, 척도의 타당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Farrel & Barnes, 1993). Olson(1989)도 문제가족을 제외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최적의 가족기능과 선형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Lavee와 Olson(1991)은 일반가족을 연구할 경우에는 선형적 관계를 가정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응집성 수준별로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구분하고, 적응성 수준별로 경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반가족 대상의 실증적 연구에서도 대부분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인 가족관계와 선형적 관계인 것으로 보고되나(김수연·김득성, 1993 ; 박경숙, 1993 ; 전귀연·최보가, 1995a, 1995b ; 최규련, 1994a ; 김정옥, 1995), 응집성만이 기능적인 가족관계에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있다(전귀연·최보가, 1993).

그러므로 Olson등의 가족체계의 기능성에 관한 가설모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척도와 분류방법, 가설 검증면에서 더 실증적 연구를 요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족을 위한 Olson등의 새로운 분류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 고찰을 하기로 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의 관계

부부간 갈등은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겪는 긴장·갈등이다. 부부갈등을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관련시킨 연구는 극히 적다. 정민자(1992)는 임상가족과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인의 긴장이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순환모델의 곡선적 가설을 입증하였다. 한편 일반가족에 대한 연구(최규련, 1994a ; 김정옥, 1995)에서 남편이나 부인의 갈등이 가족체계

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모두 선형적 관계로 유추되는 결과를 보였다.

갈등 대처방안은 개인이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문제를 관리하고 적응하는 방식이다. 갈등 대처방안과 가족체계의 기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극히 적다. 유은희(1994)는 임상가족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처방안은 회피와 억압이라고 하였다. 일반가족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최규련, 1994a) 남편과 부인의 경우 이성적 대처와 회피·행동표출적 대처, 감정표출적 대처가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각각 선형적 관계를 보여서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이성적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행동표출, 회피, 감정표출 방안은 더 적게 사용하였다. Lavee와 Olson(1991)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 2)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심리적 적응을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기로 한다. 결혼만족은 개인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해 가지는 기대에 대해 현재의 결혼생활이 일치되는 정도로서 흔히 개인의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측정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의 속성, 성격, 능력에 대한 선호도와 가치부여 정도를 의미한다. 우울증은 심리적으로 의기소침한 정도를 의미한다.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혼만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고 우울증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은 우울증과 부적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조성욱·신효식, 1987 ; 최외선·손현숙, 1991 ; 최규련, 1993a, 1993b). 이 변인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 정도가 높게 보고되나(최규련, 1990, 1993a, 1993b), 자아존중감에서는 직접 연구된 것이 없다. 이외에 교육수준, 경제상태 등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심리적 적응의 관련변인으로 단편적으로 보고되나 일관된 결과는 많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결혼만족은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결혼만족은 가족의 하위체계인 부부관계나 배우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태도와 감정이고,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전체 가족체계에 대한 부부나 자녀, 전문가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실증적 연구로 Farrel과 Barnes(1993)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은 가족의 응집성과만 선형적 관계이고 가족의 적응성 수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김윤희(1989)는 일반고교생 가족과 비행청소년 가족을 비교한 연구에서 양 가족 모두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부부적응과 선형적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일반 가족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옥, 1995; 박경숙, 1993)에서도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높은 경우 부인의 부부 적응도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응집성과 적응성이 모두 낮은 가족에서 부부적응도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보고되었다.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부부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증과 관련시킨 연구는 매우 적으며 일관된 결과도 적다.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때 남편과 부인 모두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지만 가족의 적응성 수준은 부인의 자아존중감과만 선형적 관계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고(Goldstein & Rosenbaum, 1985),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원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증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다(Cohen & Will, 1985). Farrel과 Barnes(1993)는 청소년자녀를 둔 가족에서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부부 양방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정도의 우울을 보이나, 가족의 적응성은 남편의 자아존중감과 부인의 우울증과만 선형적 관계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는 우울증환자 가족중에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은 가족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과(김홍기 등, 1991)가 있으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한궁미, 1990; 전귀연·최보가, 1995a, 1995c)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학동기자녀나 청소년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정도가 낮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서 가족의 기능성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 즉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의 관계는 연구가 적고 결과의 일관성도 적으며 부부 양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3)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이 부부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 각각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실증적 연구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취업주부에 대한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그 경향을 유추할 수 있다. 취업주부들은 역할갈등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고 우울증 정도가 높으며(임정빈·정혜정, 1986; 이연숙외, 1991; 전영자, 1991), 취업주부와 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규련, 1993a, 1993b)에서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반응적 대처방안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이 감소되고 우울증이 증가하나 갈등이 적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안을 사용할수록 결혼만족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감소된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임상 실무자의 일반화된 견해와 본 연구자의 상담경험을 통해서도 부부간 갈등과 비효과적인 대처방안은 결혼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에 정적 영향을 주며, 낮은 갈등수준과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결혼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에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이와 같이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 주로 연구되는 것은 이 시기에 청소년자녀와 그 부모는 개인의 발달적 측면과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가족체계적으로 전환기를 맞기때문에 가족문제가 많이 표출되고 가족위기도 발생할 수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근교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청소년 자녀의 성과 연령이 균등하도록

고려하여 서울시 성북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의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및 서울시 근교의 남녀 고등학생 도합 657명이 선정되었다.

청소년 자녀를 둔 50쌍의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척도의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해당학교 교사를 통하여 질문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학생에게 배포하고 부모에게 각각 전달하도록 한 후 다시 학생을 통해 회수하였다. 신뢰성있는 조사를 위해 남편용 질문지와 부인용 질문지를 각각 봉투에 넣고 부부가 상의하거나 보여주지 말고 직접 질문에 응답하여 봉투에 넣어 봉합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6월 17일에서 7월 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657쌍의 부부에게 질문지를 배부해서 617부가 회수되었고 부부 한쪽이 누락된 것과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시켜 532쌍의 부부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 2. 조사도구

### 1) 가족체계의 기능성

Olson과 Portner(1982)가 개발한 척도(FACES II : the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를 축약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가족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가족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 FACES III에 비해 일관성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 조사시 응집성 측정문항 16개, 적응성 측정문항 14개로 총 30문항으로 되어있었으나 신뢰도 분석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적응성 문항 중 생활규칙의 경직성을 묻는 1개 문항이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켜서 응집성 16개 문항과 적응성 13개 문항 총 29문항으로 되었다.

Cronbach's  $\alpha$  계수에 의한 신뢰도 검증결과 응집성 척도는 부인과 남편의 경우  $\alpha$ 값이 .89, .87이고 적응성척도는 부인이 .83, 남편이 .84 이다.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2) 부부간 갈등

부부간 갈등 척도는 박영옥과 한상순(1987), 송말희(1990), 김갑숙과 최외선(1992)의 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부인용 척도는 총 39문항이고 남편용 척도는 총 38문항이다. 주요인 분석과 사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부인용 척도는 '성격차이', '남편의 나쁜 습관', '성생활과 대화', '시가와 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자녀지도', '경제', '가치관 차이'의 8개 갈등 영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70~.88이다.

남편용 척도는 '성격차이', '남편의 나쁜 습관', '성생활', '본가와 의 관계', '처가와 의 관계', '자녀지도', '경제', '대화'의 8개 갈등영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79~.91이다. 부부갈등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남편과 부인이 동일하게 .95로 높았다.

### 3) 갈등 대처방안

McCubbin, Larson과 Olson(1982)이 개발한 가족 대처전략척도(F-Copes)와, Folkman과 Lazarus(1985)의 척도, 송말희(1990)의 척도 등을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부인용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요인분석 결과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행동표출', '외부도움요청', '감정표출', '회피'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70~.89이다. 남편용 척도는 총 26개 문항으로 주요인 분석과 사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회피와 행동표출', '이성적 대처', '신앙에 의지', '외부도움요청', '감정표출'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값이 .76~.88 이다.

모두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많고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 4)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증

결혼만족 척도는 Schumm과 동료들(1981)이 개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7점 Likert 척도로 높은 점수는 결혼생활에 만족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부인용 척도는 .93이고 남편용 척도도 .93이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9)가 개발한 Self-Esteem Inventory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남편과 부인 각각 1개 문항(자존심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은 신뢰도가 낮아 제외시키고 9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부인용이 .79이고, 남편용이 .80이다.

우울증 척도는 Ulbrich(1988)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부인용은 .91이고 남편용은 .90이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척도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일반적 경향을 알기 위하여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차이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과 Scheffe-Test를 사용하였으며 관련정도와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와, 단계별 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sup>1)</sup>

1. 가족체계의 기능성에 따른 부부의 심리적 적응

1)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의 일반적 경향 (<표 1>참조)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높은 편이고(100점 기준으로 부인 71점, 남편 79점), 자아존중감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100점 기준으로 부인70점, 남편 72점), 우울증은 중간이하(100점기준으로 부인50점, 남편 40점)였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에 비해 결혼만족도와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은 더 높게 나타났는데(P<.001)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변수들의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부의 종교가 일치하는 경우(p<.01), 초혼인 경우(p<.05),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p<.001)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부 모두 결혼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 부인의 경우 남편과 종교가 같은 경우(p<.01)와 초혼인 경우(p<.05)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증이 낮았다. 그런데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4a)에서도 부부의 종교가 일치한 경우, 초혼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가족체계의 기능성이 높고 부부간 갈등이 적으며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인들이 배경변인으로 공통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1> 부부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의 일반적 경향

집 단	부 인		남 편		Paired-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결혼만족	14.83	3.98	16.49	3.67	- 9.94	***
자아존중감	31.33	5.63	32.56	5.67	- 4.01	***
우울증	20.18	6.54	17.84	6.21	6.95	***

\* p<.05 \*\* p<.01 \*\*\* p<.001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족체계의 기능성 및 유형,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의 일반적 경향 결과와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결과, 가족체계 유형별 부부간 갈등과 대처방안 결과는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4a)를 참조

## 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부부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Olson 등이 제시한 모델의 선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Olson 팀(1991)이 제안한 방법대로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을 각각 네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부부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정도를 차이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과 〈표 2-2〉에서 보는데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부부 양방에서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우울증 정도는 낮다. 하위집단별 차이검증 결과 네 집단의 응집성, 적응성 수준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그러므로 부부 양방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부부 각자의 세가지 심리적 적응과 선형적 관계인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의 차이검증 결과들을 통하여 부부 양방 모두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이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이

심리적 적응변인들과 선형적 관계로 해석된다. 그런데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1994a)에서도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별로, 그리고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 하위영역과 전체갈등, 그리고 일부 갈등 대처방안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선형적 관계로 유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에 따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간의 관련 정도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 2.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의 갈등 및 대처방안, 심리적 적응의 상호 관계

가족체계의 기능성 척도를 구성하는 두가지 하위영역인 응집성과 적응성의 상관관계가 부인의 경우 .8347, 남편의 경우 .8011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여서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두 하위영역을 합하여 가족체계의 기능성으로 명명하고 분석하였다.

〈표 2-1〉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부인의 심리적 적응

가족체계	응 집 성					적 응 성				
	과잉분리	분리	연 결	매우연결	F 값	경 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융통적	F 값
표 본 수	76	152	180	64		73	133	181	73	
결 혼 만 족	11.13	13.65	16.03	18.10	17.45***	11.40	14.17	15.70	17.73	14.38***
자 아 존 중 감	28.22	30.62	32.48	34.77	25.30***	29.06	30.44	32.24	34.42	21.52***
우 울 증	24.67	21.11	18.57	16.05	52.57***	24.30	20.98	18.69	16.75	41.53***

\*  $p < .05$  \*\*  $p < .01$  \*\*\*  $p < .001$

〈표 2-2〉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른 남편의 심리적 적응

가족체계	응 집 성					적 응 성				
	과잉분리	분리	연 결	매우연결	F 값	경 직	구조적	융통적	매우융통적	F 값
표 본 수	76	138	208	61		70	149	183	80	
결 혼 만 족	12.91	15.64	17.71	19.30	59.96***	13.00	15.86	17.51	18.65	42.02***
자 아 존 중 감	28.56	30.52	33.99	37.23	44.87***	28.19	31.04	33.68	36.29	35.57***
우 울 증	21.93	19.69	16.52	13.25	33.11***	21.71	19.48	16.96	14.20	24.69***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그리고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표 3-1>, <표 3-2> 참조)

1)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의 상관관계

부인과 남편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족의 기능성이 부부간 갈등과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부인  $r = -.64$ , 남편  $r = -.67$ ), 갈등대처방안 중에서 이성적 대처가 가족의 기능성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부인

<표 3-1> 부인의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교육	1.00											
2. 가족소득	.46***	1.00										
3. 부부간총갈등	-.09	-.02	1.000									
4. 신앙에 의지	.06	-.01	.19***	1.00								
5. 이성적 대처	.20***	.13**	-.33***	.07	1.00							
6. 행동표출	-.08	.01	.53***	.15**	-.31***	1.00						
7. 외부도움요청	.03	.04	.29***	.24***	-.13**	.28***	1.00					
8. 감정표출	.09	.10*	.30***	.05	-.08	.48***	.13**	1.00				
9. 회피	.09	.11*	.52***	.06	-.20***	.48***	.21***	.30***	1.00			
10. 가족의 기능성	.18***	.09	-.64***	-.12**	.45***	-.41***	-.19***	-.20***	-.37***	1.00		
11. 결혼만족	.16***	.09	-.68***	-.06	.33***	-.45***	-.09	-.25***	-.47***	.59***	1.00	
12. 자아존중감	.21***	.23***	-.29***	.00	.36***	-.23***	-.17***	-.09	-.21***	.37***	.32***	1.00
13. 우울증	-.05	-.01	.53***	.11*	-.22***	.45***	.23***	.43***	.50***	-.42***	-.48***	-.44***

\*  $p < .05$  \*\*  $p < .01$  \*\*\*  $p < .001$

<표 3-2> 남편의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 교육	1.00										
2. 가족소득	.40***	1.00									
3. 부부간 총갈등	-.12**	-.05	1.000								
4. 회피 행동표출	-.10*	-.05	.65***	1.00							
5. 이성적 대처	.12*	.12*	-.42***	-.40***	1.00						
6. 신앙에 의지	-.02	-.10*	.07	.03	.06	1.00					
7. 외부도움요청	-.09	-.08	.17***	.10*	.01	.34***	1.00				
8. 감정표출	-.03	-.07	.38***	.50***	-.21***	.04	.02	1.00			
9. 가족의 기능성	.19***	.05	-.67***	-.52***	.54***	-.00	-.12**	-.27***	1.00		
10. 결혼만족	.15**	.11*	-.71***	-.51***	.40***	-.02	-.11*	-.31***	.59***	1.00	
11. 자아존중감	.23***	.21***	-.44***	-.47***	.50***	-.09	-.08	-.36***	.50***	.41***	1.00
12. 우울증	-.02	-.10*	.60***	.59***	-.34***	.12**	.11*	.45***	-.45***	-.49***	-.57***

\*  $p < .05$  \*\*  $p < .01$  \*\*\*  $p < .001$

$r=.45$ , 남편  $r=.54$ ), 행동표출방안, 감정표출방안, 회피방안, 외부도움 요청방안 등은 가족의 기능성과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이 적고 갈등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가족기능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Lavee & Olson, 1991)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외에 남편과 달리 부인의 경우에 신앙에 의지하는 대처방안이 가족의 기능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심층연구가 더 필요하다.

## 2)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관계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부 공통적으로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결혼만족(부인  $r=.59$ , 남편  $r=.59$ ), 자아존중감(부인  $r=.37$ , 남편  $r=.50$ )과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우울증과는 부적 상관(부인  $r=-.42$ , 남편  $r=-.45$ )을 보였다.

부부간 갈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총갈등은 결혼만족과 부적 상관(부인  $r=-.68$ , 남편  $r=-.71$ )이고, 자아존중감과도 부적 상관(부인  $r=-.29$ , 남편  $r=-.44$ )을 보이며 우울증과는 정적 상관(부인  $r=.53$ , 남편  $r=.60$ )을 보였다.

갈등대처 방안과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 부부 공통적으로 이성적 대처방안은 결혼만족, 자아존중감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이고, 우울증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반면 회피방안, 행동표출 방안은 결혼만족, 자아존중감과 각각 부적 상관을, 우울증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고찰이 곤란하나 취업주부와 남편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최규련, 1993a, 1993b) 결과와 여러 임상가들의 일반적인 견해, 본 연구자의 임상경험등을 통한 추론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밖에 갈등대처 방안중에서 외부도움 요청방안과 신앙에 의지하는 방안은 부부 양방에서 공통적으로 우울증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또한 외부 도움요청방안은 부인의 자아존중감 및 남편의 결혼만족과 각각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서는 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변인별 부인과 남편의 상관관계를 보면 교육수준 상관은 .72이고, 부부간 총갈등 상관은 .53이며, 가족체계의 기능성상관은 .56이고, 결혼만족도 상관은 .52로서 부부간에 관계역동과 관련된다는 변인에서 부부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증에서 부부간의 상관은 각각 .26, .29으로 낮았고, 이성적 대처방안과 행동표출방안에서 부부간 상관은 각각 .28, .37이었다.

## 3. 부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 그리고 부부의 심리적 적응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서, 또한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여러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고 연구도 적으며 탐색단계로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는 경향이다.

본 연구자는 부부의 심리적 적응 즉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이 각각 어떤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지에 관심이 있으므로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을 각각 중회귀분석하였다. 배경변인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과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 등의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차이검증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교육수준, 부부간 종교일치여부, 초혼/재혼 여부, 가족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배경변인으로 작용하므로 이 변인들을 1단계 중회귀분석에 포함시켰고 2단계에는 부부간 총갈등, 대처방안,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더 포함하여 포함시켰다.

단계별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1〉, 〈표 4-2〉 참조).

### 1) 결혼만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부인은 1단계에서 교육수준, 부부간 종교일치, 초혼/재혼 여부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2단계에서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간 갈등이 적을수록, 외부도움 요청을 대처방안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회피적

(표 4-1) 부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교육수준	.1482***		.1492**			
부부간 종교일치	.1222**		.1275**		-.1225**	
초혼/재혼	.1551***				-.1266**	-.0828*
가족소득		.0849**	.1636***	.1998***		
부부간 갈등		-.4705***				.1789**
이성적 대처				.2324***		
외부도움요청		.1185***				
감정적 대처						.2217***
회피적 대처		-.1686***		-.0944*		.2239***
행동표출 대처						.1005*
가족의 기능성		.2428***		.1890***		-.1398**
R <sup>2</sup>	.0669	.5306	.0914	.2306	.0311	.4148
R <sup>2</sup> 증가분		.4637		.1392		.3837

\* p<.05 \*\* p<.01 \*\*\* p<.001

(표 4-2) 남편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교육수준	.1354**		.1343**	.0907*		
부부간 종교일치	.1023*					
초혼/재혼여부						
가족소득		.0790*	.1291**	.0846*	-.0879*	
부부간 갈등		-.5348***				.3340***
이성적 대처				.2675***		
감정적 대처				-.1395**		.1906***
회피·행동표출		-.0976*		-.1402**		.2844***
신앙에 의지				-.0828*		
가족의 기능성		.1619***		.2291***		
R <sup>2</sup>	.0294	.5251	.0483	.3983	.0077	.4509
R <sup>2</sup> 증가분		.4957		.3500		.4432

\* p<.05 \*\* p<.01 \*\*\* p<.001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할수록, 가족체계의 기능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 총합은 53.1%이었다.

남편은 1단계에서 교육수준, 부부간 종교일치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다. 2단계에서 가족소득이 높을

수록, 부부간 갈등이 적을수록, 회피와 행동표출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가족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총합은 52.5%이었다.

이로써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갈등이 결혼만족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 가족체계의 기능성, 회피(/행동표출)적 대처, 가족소득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서 부부간 갈등과 가족체계의 기능성의 영향력이 큰 것은 관계적 속성을 지닌 결혼만족의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 2)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부인의 경우 1단계에서 교육수준, 부부간 종교일치, 가족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가족소득, 이성적 대처, 회피적 대처, 가족체계의 기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 변인들의 설명력 총합은 23.1%이었다.

남편의 경우는 1단계에서 교육수준과 가족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교육수준, 가족소득, 이성적 대처, 감정적 대처, 회피·행동표출적 대처, 신앙에 의지, 가족체계의 기능성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 총합은 39.8%이었다.

이 결과에서 부부 공통으로 이성적 대처방안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회피(/행동표출)적 대처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나 임상적 추론과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가족의 소득이 역시 부부 양방의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새로 발견한 사실이다. 이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나 본 연구결과만으로 볼때 가족체계의 기능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부의 자아존중감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상이점으로는 남편의 경우 감정적 대처와 신앙에 의지하는 방안들이 부적 영향력을 지니고 부인의 경우보다 여러 대처방안들이 자아존중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 3) 우울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부인의 경우 1단계에서 부부간 종교일치와 초혼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부부간 종교일치 변인은 영향력이 없어지고 초혼일 때,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감정적 대처, 회피적 대처, 행동표출적

대처 등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의 기능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 총합은 41.5%이었다.

남편의 경우는 1단계 분석에서 가족소득만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2단계 분석에서는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감정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회피·행동표출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력 총합은 45.1%이었다.

이 결과에서 부부 공통적으로 부부간 갈등과 감정적 대처, 회피와 행동표출 등의 대처방안이 우울증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 양방에서 공통적으로 갈등보다 비효율적인 대처방안들이 우울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행연구와 일치되었다. 한편 가족의 기능성은 부인의 우울증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인이 남편에 비해 가족지향적이고 가족체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이상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부부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부부간 갈등은 결혼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갈등 대처방안중 이성적 대처는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회피(/행동표출)적 대처는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 심리적 적응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회피(/행동표출)적 대처를 포함한 비효율적인 대처방안들은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가족의 기능성과 가족의 소득은 결혼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부부간에 성차도 각 분석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들을 실생활에 적용시킨다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가 가족생활에서 행복과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부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방지하는 노력과 아울러 갈등 발생시 이성적인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하고, 회피와 행동표출이나 감정적 대처를 적게 사용해야 하겠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고 부부가 동일한 종교를 가지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적응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부부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할 목적으로 서울지역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부 532쌍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지방법으로 가족체계의 기능성에 따른 부부의 심리적 적응을 조사하고 부부의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과 관련되는 변인들과 그 상대적 영향력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평균, 백분율, t-Test, ANOVA, Scheffe-test, Pearson의 상관관계, 단계별 중회귀분석(stepwise-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은 경우 부부 양방은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우울증이 낮았다. 이는 가족체계의 기능성과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의 심리적 적응이 선형적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부부간 갈등, 회피·행동표출적 대처방안, 감정적 대처방안, 외부도움 요청방안 등은 가족의 기능성, 결혼만족, 자아존중감 등과 각각 부적 상관을 가지며, 우울증과는 정적 상관을 가졌다. 이성적 대처방안은 가족의 기능성, 결혼만족, 자아존중감과는 각각 정적 상관을, 우울증과는 부적 상관을 가졌다.

셋째, 부부 양방에서 부부간 갈등이 적을수록, 가족의 기능성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많을수록, 회피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공통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네째, 부부 양방에서 이성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의 기능성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많을수록, 회피적 대처를 적게 사용할수록 공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이외에 남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정적 대처와 신앙에 의지하는 대처방안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다섯째, 부부 양방에서 부부간 갈등이 많을수록, 감정적 대처방안과 회피·행동표출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공통적으로 우울정도가 높았고, 이외에 부인의 경우 가족의 기능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우울정도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부부 양방에서 부부간 갈등이 적고 이성적 대처방안을 많이 사용할 수록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하며, 가족체계의 기능성은 부부의 결혼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간 갈등은 결혼만족과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이성적 대처방안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감정적 대처는 우울증에, 회피적(행동표출적) 대처는 세가지 심리적 적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가족소득이 부부 공통적으로 결혼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부부간에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에서 부부간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이며, 갈등에 대해 회피나 행동표출적 대처, 감정적 대처 등의 비효율적 대처를 적게 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인과 남편 양방은 행복한 결혼생활과 높은 자아존중감과 최적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 부부간의 차이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가족의 가족생활교육과 부부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고 다른 가족주기 단계의 부부에 대한 비교고찰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김갑숙·최외선(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10(2), 133-143.
- 2)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의 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11(2), 30-39.
- 3) 김윤희(1989).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4) 김정옥(1995). 가족스트레스, 가족체계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 101-112.
- 5) 김홍기·장선향·이선미·정의식(1991). 우울증 환자에서 가족기능도지수와 가족적응력·결속력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2(7), 36-45.
  - 6) 도수경(1990).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경험소녀간의 가족관계연구-순환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7) 박경숙(1993).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중년기 여성이 인지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8) 박영옥·한상순(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33-49.
  - 9) 서병숙(1994).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10)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8.
  - 11) 안양희(1987). 고등학교 남학생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서큘프렉스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2) 유순덕(1987).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13)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14) 유은희(1994). 상담가족의 부부간 상호작용.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 연구보고서 1권, 40-53.
  - 15)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2).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4.
  - 16) 임용우(1984).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7)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18) 정민자(1992). 임상-정상 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89-218.
  - 19) 전귀연·최보가(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20) 전귀연·최보가(1995a).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1), 83-98.
  - 21) 전귀연·최보가(1995b).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2), 73-88.
  - 22)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4.
  - 23) 조성옥·신효식(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77-200.
  - 24) 최규련(1993a).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25) ——— (1993b).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대처전략이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 논문집 11, 301-318.
  - 26) ——— (1994a).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27) ——— (1994b). 해결중심적 단기가족치료를 적용한 부부상담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 17-39.
  - 28) 최외선·손현숙(1991). 도시주부의 자아긍정감과 가정생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4), 99-114.
  - 29) 한궁미(1990).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30) Anderson, S.A.(1986).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 A test of an Olson circumplex

- model hypothesis. *Family Relations* 35, 289-293.
- 31) Beavers, W.R.(1977). *Psychotherapy and growth : Family system perspective*. N.Y. : Brunner/Mazel, 1977.
- 32) Beavers, W.R. & Voeller, M.N.(1983). Family models :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 Olson Circumplex Model with the Beavers Systems Model. *Family Process* 22, 85-98.
- 33) Bell, R.(1982).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runaways : Interaction types and the Circumplex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34) Clake, J.P.(1984). The family types of schizophrenics, neurotics, and "norm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35) Cohen, S. & Will,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36) Farrel, M.P. & Barnes, G.M.(1993). Family systems and social support : A test of the effects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37) Folkman, S.K. &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 38) Forgarty, T.F.(1976). Marital crisis. in P.J. Guerin (ed). *Family therapy*. N.Y. : Gardner.
- 39) Framo, J.L.(1981). Marital therapy with sessions with family origin. in A.S. Gurman & Kniskern, D.P.(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 Brunner/Mazel.
- 40) Green, R.G., Kolevzon, M.S. & Vosler, N.R. (1985). The Beavers-Timberlawn model of family competence and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 separate but equal?. *Family Process* 24, 385-398.
- 41) Lavee, Y. & Olson, D.H.(1991).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3), 786-798.
- 42) Lewis, J.M., W.R. Beavers, J.T. Gosett & Phillips, V.A.(1976). *No single thread : Psychological health in family systems*. N.Y. : Brunner/Mazel.
- 43) McCubbin, H.I., Larsen, A.S. & Olson, D.H. (1982). F-COPES : Family coping strategies. In D.H. Olson, H.I. McCubbin, H.L. Barnes, A.S. Larsen, M.J. Muxen, & M.A.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St.Paul : Univ. of Minnesota.
- 44) Miller, I.W., Epstein, N.B., Bishop, D.S. & Keitner, G.I.(1985).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 345-356.
- 45) Olson, D.H.(1991). Commentary : Three-dimensional(3-D) Circumplex Model and revised scoring of FACES III. *Family Process* 30, 74-79.
- 46) Olson, D.H. & Portner, J.(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II. in E.E. Filsinger(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Sage Publication.
- 47) Olson, D.H., Russel, C.S., & Sprenkle, D.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48) Olson, D.H., Sprenkle, D.H. & Russel, C.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 49) Smith, D.E.(1985). The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to family satisfaction : A study of family stress pile up. Ph.D.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 i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7(3).
- 50) Stierlin, H.(1972).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N.Y. : Quadrangle.